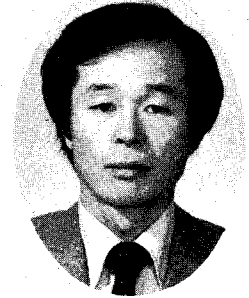


# 81~82 육용업계 분석과 전망



신 정 일  
(구랑랜드·육계경영)

## 1. 머릿말

아직까지 올해의 겨울은 유난히 날씨가 포근하다. 양계인들에게는 따뜻한 날씨가 더없이 다행한 일이지만 이렇게 좋은 날씨가 앞으로 언제 갑자기 더욱 혹독한 추위를 몰고 올런지 몰라 때때로 두려운 염려가 되기도 한다.

추석까지 계속된 오랫동안의 좋은 경기가 있는 뒤 지금까지 나쁜 경기를 이루고 있는 육계업계는 이제 양계인들을 기진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 경제의 82년도 경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알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예측불허인 상태와 마찬가지로 육계시세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예상하기가 매우 힘들다.

육계경기의 특징은 다른 산업보다도 특히 생산량과 수요량의 균형에 따라 가장 많이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이다. 소비량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양계인 자신들이 생산해 내고 있는 생산량의 파소가 경기결과의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육계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성공의 요건이 여러가지 있지만 우선 가장 중

요한 문제가 바로 출하가격형성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육계산업은 자본회전이 매우 빠른 극히 민감한 사업이다. 81년을 보내고 82년도를 맞이하면서 육계업자는 모두 내년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씩의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면서 바라보고 있다. 필자도 육계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82년도를 감히 전망한다는 것이 외람된 일인 것 같지만 필자가 얼마간의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독자 여러분과 함께 예상해 보기로 한다.

## 2. 상황 및 분석

우선 80년도와 81년도에 형성된 육계업계의 상황을 분석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대한양계협회에서 조사된 자료에 한해서는 육용종계분양수량이 가장 많았던 해가 1979년도의 약 145만수이었다. 당연한 귀결로 80년도는 79년말의 극심한 불황 여파로 입추중지 현상때문에 년초 3월의 시세폭등 이후 계속 경기가 나빴었고, 심지어 사상 최초 삼복경기 하락현상을 나타내었다. 80년도의 복경기는 생산과잉요인도 있었지만 이상 저온현상으로

표 1. 80~81년도 육용업계 동향 (대닭시세형성 및 상황분석)

구분 월일	1980 년		1981 년	
	시세 (원/kg)	상황 및 분석	시세 (원/kg)	상황 및 분석
1.2	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부터추위 (영하 9℃)</li> <li>● 병아리 구입난 극심, 초생추 가격급등</li> <li>● 육계시세 폭등기미 보임</li> </ul>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전국대설 1.5까지 년초 혹한 양평 영하 30℃이하 기록</li> <li>● 정초병아리처짐</li> </ul>
1.5	600		1,000	
1.8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중돈육품귀현상 (1,000원/근-정육점)</li> <li>● 육계시세 계속보합 (700원선)</li> <li>● 1.17-서울영하 15℃, 강추위 계속</li> </ul>	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납단가 34% 인상 (1,558원/도체 kg)</li> <li>● 육계시세 계속보합 (1,000원선)</li> <li>● 1.21-이란 미국인 인질 444 일만에 석방</li> </ul>
1.24	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2-사료가격평균28%인상</li> </ul>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로널드·레이건 미 제40대 대통령 취임</li> </ul>
1.28	900		980	
2.1	970		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한미정상회담.</li> </ul>
2.7	930		950	
2.15	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6-구정</li> </ul>	900	
2.19	930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9-정월대보름</li> </ul>
2.25	950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6-서울영하15℃ (전국한파)</li> </ul>
3.3	1,100		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3-제 5 공화국출범-전두환 대통령 취임 (제12대)</li> </ul>
3.10	1,200		950	
3.20	1,100		900	
3.27	950		900	
4.1	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월초순 도계단속 영향-시 세하락</li> </ul>	900	
4.6	800		1,000	
4.20	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월 계속약세</li> </ul>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월 계속강세</li> </ul>
4.25	700		1,100	
5.1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계 단속파동 심각</li> </ul>	1,150	
5.5	570		1,100	
5.15	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9-수매시작 (610원/kg)</li> </ul>	1,100	
5.30	550		1,000	
6.5	600		1,050	
6.10	650		1,100	
6.20	5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추 격감추세</li> </ul>	1,000	
6.25	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병아리충족도100%</li> </ul>	900	
7.1	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양계 협회수매회의 아우성</li> <li>● 7.1-사료가격자율화</li> <li>● 7.2-국보위민원실 도계법관계 진정서 접수</li> </ul>	950	

7.10	600		1,000	
7.20	650	● 입추감소추세	1,050	● 입추계속추세
7.25	680		1,150	
8.1	680		1,200	● 8.1- 해외여행자유화 발표
8.10	660	● 8월중순- 계속 비 (여름이상 저온)	1,250	
8.20	660	● 사상최초- 북경기하락 원인: 생산과잉, 일기불순 일반경제 불안	1,100	● 북경기 호황- 흑서인과 소비 촉진과 생산량 적절
9.1	700		1,000	
9.10	800	● 사료가격인상러시	1,000	
9.20	750	● 축협중앙회 발족 ● 대통령농수산 정책지시 (수입 자제, 쇠고기대신 돈육, 계육 대치 등)	850	
9.25	750		700	
10.2	800	● 9.27경제혁명- 비업무용 부 동산신고, 계열기업정리	600	● 88서울 올림픽유치성공 (9.30- 서독 바덴바덴의 10c총회)
10.10	750	● 켄터기후라이드치킨 붐	750	
10.22	900	● 10.15- 서울시돈육가격인상 1,600원/kg	670	
10.27	920	● 10.22- 헌법개정 국민투표 ● 10.26- 서울영하 2℃ (전국한 파) ● 도계단속, 사료가격23%선인 상	620	
11.5	800	● 서울시돈육가격인상 1,850원/근 (11.11)	800	
11.11	950	● 11.11-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 811명 발표		
11.15	1,100	● 11.14- 언론기관통폐합	750	
11.20	950		660	● 11.19- 야간통행금지해제결정
11.25	900	● 동해안어획고 30년만의 풍어	670	● 11.25- 86야주경기유치
11.30	900	● 12.5- 서울영하12℃	680	
12.10	1,000	● 사료인상후 생산원가 1,000원/kg	780	
12.15	980	● 12.13- 서울영하 14.4℃	780	● 날씨계속 포근함
12.20	950		780	
12.25	950	● 12.29- 서울영하17℃ (7년만의 의 12월 한강결빙)	800	● 추석이후 계속불황- 생산과잉
12.30	950	● 27년만의 마이너스 성장5.7% ● 80년도 ND 없음		● 물가안정추세 ● 81년도 ND 없음

참고 1. 서울지역기준, 차량대상기준

소비위축의 영향이 매우 컸었다. 그 결과로 김장철 kg당 1,100원이라는 이변을 낳았다. 80년도의 특징중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가지가 사료가격자율화와 가격인상러시였다. (표 2 육계사료가격 인상현황 참조), 따라서 80년도 12월에 산출된 육계 kg당 생산원가가 1,000원으로 나타났었다.

육계사료 가격(공장도) (원/kg)

종류 년월	肉 鷄 用		
	育鷄前期	育鷄後期1號	育鷄後期2號
1978	121.43	118.09	-
1979	125.57	-	-
1980	179.39	171.10	170.45
1980. 10	184.08	173.12	172.04
11	208.32	201.42	198.91
12	212.59	202.89	203.76
1981. 1	221.76	212.46	211.59
2	225.16	216.69	219.34
3	228.11	119.02	218.68
4	228.51	219.91	209.20
5	228.00	218.91	209.20
6	230.72	224.16	209.20
7	236.03	225.67	209.20
8	238.33	226.58	-

올해 81년도는 80년도에 적게 분양된 종계 수량의 결과로 추석때까지 계속 더 없이 호경기를 누렸다. 이렇게 계속된 오랫동안의 좋은 경기는 양계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여름이 지나면서도 신규업자들의 출현과 더불어 계속 입추하였고 당연한 결과로 추석이 후 지금까지 또 불경기를 당하고 있다. 80년부터 지금까지 뉴캐슬질병의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이 또한 매우 특징적이다.

표 3의 80~81월별 육계가격 동향을 살펴 보면, 80년 2월~4월과 10월~12월 사이의 좋은시세와 여름의 나쁜시세에 비하여 81년은 계속 호경기이었다가 9월하순부터 나쁜

게 나타나 있다.

표 3. 80-81 월별육계가격동향 (단위 원/1g)

년도별 월별	80	81
1	450~900	1,000
2	950	980~700
3	1,000~1,200~1,100	750~900
4	900~700	900~1,100
5	600	1,100
6	600	1,050
7	650	950~1,150
8	660	1,250
9	750	1,000~700
10	800~900	650
11	800~1,100~900	800~650
12	1,000~950	780

참고 1. 77~79 월별 육계가격동향은 월간양계 80년도 1월호에 게재된 필자의 79~80 분석과 전망 기사 참조.

### 3. 육용종계 분양현황

조사된 대한양계협회의 자료가 얼마나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필자의 생각에는 년도와 상황에 따라 종계분양수수의 집계정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경향치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공식적인 자료에 위하여서만이 모든 상황판단이 가능해 질 수 있다. 표 4의 77~81년 월별육용종계 분양현황에 의하면 77년도 80만수, 78년도 128만수, 79년도 144만수, 80년도 104만수, 그리고 올해가 11월까지 집계로서 약116만수로 나타나 있다. 참고로 국내 대형 부화장의 하나인 C 부화장의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78년도 140만수, 79년도 154만수, 80년도 121만수로 나타나 있다.

79년도의 144만수는 80년의 불황을 가져왔고 80년의 104만수는 올해의 호경기를 가져

표 4. 77~81 월별육용종계 (P.S) 분양현황 (우기준)

년도별 월별	77	78	79	80	81
1	10,118	85,136	105,260	29,860	72,180
2	33,010	145,517	150,310	73,540	60,530
3	74,645	198,210	248,400	86,993	87,365
4	111,170	193,180	145,980	128,750	121,401
5	108,909	204,500	120,830	129,480	163,164
6	94,183	125,140	120,140	102,377	164,700
7	93,710	75,960	109,885	113,490	129,650
8	77,350	49,530	105,999	83,080	99,700
9	72,680	43,930	86,650	96,500	122,600
10	51,185	42,190	139,215	80,150	85,000
11	32,820	58,850	63,690	55,300	51,300
12	42,050	58,240	44,470	64,200	미 정
계	801,830	1,280,583	1,440,829	1,043,720	(1,117,590)

참고 1. 대한양계협회 자료



왔다. 그런데 올해의 약 122만수 (12 월추제합산)는 내년의 경기에 어떠한 경기를 나타낼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좀 우려하는 것은 올해 집계된 약 122만수의 종계수수에 대한 그 정확도가 79년도나 80년도의 정확도에 비하여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즉 실제 분양된 수수가 79~80년도에 비해서 더욱 큰 폭으로 많은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이다. 어쨌든 올해의 122만수는 매우 묘한 수량으로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4. 육용초생추 (cc)

앞에서 논의된 종계분양수수에 의하여 산출된 월별 육용초생추 생산잠재력을 표 5에서 볼 수 있다. 77년도는 300만수내외, 78년도는 400만수대에서 900만수까지, 79년도 이후부터는 월 1,000만수대를 넘기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잠재력을 가진 때가 80년 6월 (80년 북경기 나뭇잎)이었고 올해는 대체로 800만수대로 적었으며 내년 82년도도 1,000만수대를 나타내고 있어 호경기를

표 5. 77~82월별 육용초생후 생산잠재력 (단위 : 만수)

년도별 월별	77	78	79	80	81	82
1	265	409	1,042	967	840	835
2	292	448	1,087	1,034	836	912
3	321	516	1,090	1,096	862	944
4	351	579	1,089	1,157	809	962
5	362	645	1,099	1,183	840	1,026
6	367	687	1,100	1,259	873	1,045
7	362	708	1,075	1,220	897	1,026
8	368	717	992	1,120	889	(미 정)
9	340	727	904	914	875	
10	323	760	864	845	810	
11	324	844	905	813	770	
12	364	937	925	821	788	
계	4,039	7,977	12,172	12,429	10,089	

- 참고 1. 8개월 육성, 10개월 채종  
 2. 75. 8~76. 5월 분양종계 → 77. 1월의 생산잠재력  
 3. 생존율 90%, 산란율 50%, 배부율 70%

선뜻 예상하기가 좀 힘들다.

서 가장 정확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사료 현황일 것이다. 79~81월별 육용계 사료생산 현황을 보면 표 6과 같다.

### 5. 육계사료 생산현황

우리들이 관계하고 있는 양계 관련산업중에 79년도 합계 57만톤, 80년도 합계 45만톤,

표 6. 79~81월별육용계사료생산현황 (단위 : M/T)

구분 월별	전 기 사 료			후 기 사 료			합 계		
	79	80	81	79	80	81	79	80	81
1		7,785	11,747		16,335	20,790	50,588	24,120	32,537
2		6,077	10,370		5,329	19,774	54,704	11,406	30,144
3		12,890	14,202		9,909	22,581	59,698	22,799	36,783
4		17,601	16,172		21,436	23,598	53,488	39,037	39,770
5		19,956	20,793		30,332	27,098	53,215	50,288	47,791
6	18,350	19,941	20,774	27,977	33,785	30,010	46,327	53,726	50,784
7	18,215	18,974	20,772	29,220	38,392	30,868	47,435	57,366	51,640
8	17,349	14,697	20,448	27,556	33,316	31,301	44,905	48,015	51,749
9	17,951	12,133	19,281	31,270	27,104	34,568	49,221	39,237	53,849
10	15,442	12,552	17,815	26,275	24,291	35,002	41,717	36,843	52,817
11	12,999	10,695	14,241	25,360	17,613	31,665	38,359	28,308	46,106
12	9,271	14,187	(미 정)	22,962	24,264	(미 정)	32,233	38,451	미 정
계		167,488			282,106		571,890	449,594	(494,070)

표 7. 육계전기사료생산량과 두달후의 육계가격형성 비교

구분 월별	79년		80년		81년	
	전기사료생산량	두달후의육계가격	전기사료생산량	두달후의육계가격	전기사료생산량	두달후의육계가격
1		400~550	7,785	1,100~1,200	11,747	750~900
2		500내외	6,077	700~900	10,370	900~1,100
3		650내외	12,890	600	14,202	1,100
4		630	17,601	650	16,172	1,050
5		700~750	19,956	660	20,793	950~1,150
6	18,350	750~800	19,941	750	20,774	1,250
7	18,215	450~600	18,974	800~900	20,772	700~1,000
8	17,349	350내외	14,697	800~1,100	20,448	650
9	17,951	350~500	12,133	950~1,000	19,281	650~800
10	15,442	400내외	12,552	950~1,000	18,815	780
11	12,999	450~900	10,695	1,000	14,241	미 정
12	9,271	950	14,187	700~980	미 정	미 정

참고 1. 80년 1월의 전기사료 생산량 7,785톤은 동년 3월에 kg당 1,100~1,200원의 육계가격을 형성함.

81년도는 11월까지 약 50만톤으로 나타나 있다. 북경기를 제외하고 육계사료 생산량의 위험수위는 월 5만톤대이다. 월 5만톤이상이면 일단 북경기가 온다고 봐야 한다. 육계사료현황을 보면 기간동안 나타났던 육계가격과 무척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올해는 여름까지 월별 생산량이 매우 균형있게 생산되었지만 9월이후는 과잉현상이고, 80년도는 7월의 57,000톤에 비해 2월은 11,400톤으로 극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79년도는 닭고기 소비량에 비해 사료생산량 57만톤으로 73년 오일·쇼크이후 최악의 해였다고 했던 한해였었는데 동년 3월의 59,700톤은 가히 놀랄만한 수량이었다. 월 육계사료 생산총량이 2만톤대로 떨어지면 가격이 폭등한다. 78년이후 월육계사료 생산총량이 2만톤대 이하인 때를 살펴보면 78년 1월 26,600톤, 80년 1월 24,000톤, 80년 2월 11,000톤, 80년 3월 23,000톤, 80년 11월 28,000톤의 4개월뿐이었다. 78년이후 월 생산량이 5만톤이상인 때는 79년의 1월 부터 5월(73년 오일·쇼크이후 최악의 상태-320원/kg)까지와 작년의 5월, 6월, 7월(사상

표 8. 육계가격 kg당 1,000원 형성을 위한 육계 전기사료 월별 적정수량 추산

(단위 : M/T)

월별	전기사료적정수량	비율%	비 교
1	11,000	6.1	3월
2	12,000	6.7	4월
3	15,000	8.3	5월
4	16,000	8.9	6월
5	20,000	11.1	초복·중복
6	21,000	11.7	말복
7	17,000	9.4	추석
8	16,000	8.9	10월단풍놀이
9	14,000	7.8	김장철
10	15,000	8.3	년말년시
11	11,000	6.1	소설·대설
12	12,000	6.7	구정
계	180,000	100	

참고 1. 1981년 12월 현재 육용계 kg당 생산원가 950원으로 계산할 때 양계농가의 적정이윤을 위한 출하가격을 kg당 1,000원으로 기준하였으며 앞으로 국민의 닭고기 소비량의 증가됨에 따라 전기사료 적정수량도 동시에 증가될 수 있음.

최초 북경기 하락)이었고, 그리고 올해 6월 부터 10월까지로 나타나 있다.

79년부터 월별 전기사료생산량과 그 두달 뒤에 나타난 육계가격형성을 비교해 보면 표 7과 같다. 올해의 삼복더위와 이에 대처한 국민들의 피서인파와 닭고기 소비량은 매우 특징적이었고 따라서 다소 많을 것 같았던 월 전기사료 생산량 2만톤대가 무난히 호경기로 결말지어졌다. 이상저온현상이었던 작년의 북경기 2만톤과 그 시세를 함께 비교하면 매우 흥미롭다. 비수요기의 전기사료 월 생산량은 12,000톤대가 되어야 경기가 좋게 나타난다.

79년부터 올해까지 나타난 육계전기사료와 그 두달뒤에 나타난 육계가격동향을 분석한 가격을 필자 나름대로 분석하여 1981년 12월 현재 육용계 1kg당 생산원가를 950원으로 계산하고 양계농가의 적정이익을 위한 출하가격 1kg당 1,000원을 위한 월별 육계전기사료 적정수요량을 추산한 내용이 바로 표 8에 나

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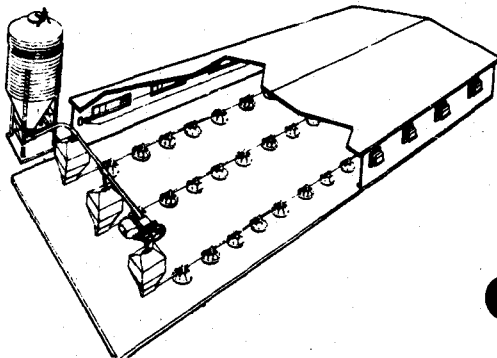
해마다 종계가 얼마나 분양되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계절적인 닭고기 소비량 변화에 따라 육계생산도 당연히 조정되어야 한다.

## 6. 결론과 전망

종계분양수량이 얼마이든 계절적으로 그 생산량은 조정되어야 한다. 올해 종계 분양수량 122만수는 우리나라 소비의 특징으로 보아 북경기에 위험한 요인까지는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계절에는 불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이 된다. 생산자 스스로가 조절해야 하고 부화장이 같은 사망감을 가져야 한다. 시장유통질서에 혼란이 없어야 하고 생산자는 건전한 재무구조에 합리적인 생산관리와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82년도는 호불황의 양면을 사이에 둔 묘한 지점에서 있을 것이다. 조심해야 할 것이다.

**초어 타임의 어거방식에 의한**

**자동급이의 도입은 축산의 혁명입니다.**



사료의 오염에서,  
사료의 훼손에서 보호되고  
일손을 덜어드리며  
보다 높은 수익성을  
위하여

**CHORE TIME**

농장의 자동화를 하시고자 하실 때는 언제라도 상의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생산성과 경제성은 가지신 분만이 아십니다.

**晤 鎮 洋 行**  
OHJIN CORPORATION

723-4125  
723-4128